

주말 세계 피겨 스타 총집합



김연아, 서울 아이스쇼 출전

김연아(18·군포 수리고)를 비롯한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은반 스타'들이 환상적인 아이스쇼 무대를 통해 국내 팬들의 '피겨 갈증'을 풀어준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가 주최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KCC 스웨덴 페스타 온 아이스 2008'이 17일(오후 2시·오후 7시30분)과 18일(오후 3시) 이틀 동안 양천구 목동 실내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진다.

김연아와 함께 남자 싱글 세계랭킹 1위 다카하시 다이스케(일본), 2008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3위 조니 워어(미국),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라카와 시즈카(일본), 2008 세계선수권대회 페어 우승 및 준우승을 차지한 알리나 사브렌코-로빈 즐코비(독일)와 장단-장하오(중국), 2008 세계선수권대회 아이스댄싱 준우승팀 테사 버츰-스콧 마이어(캐나다), 2008 유럽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2위 사라 마이어(스위스)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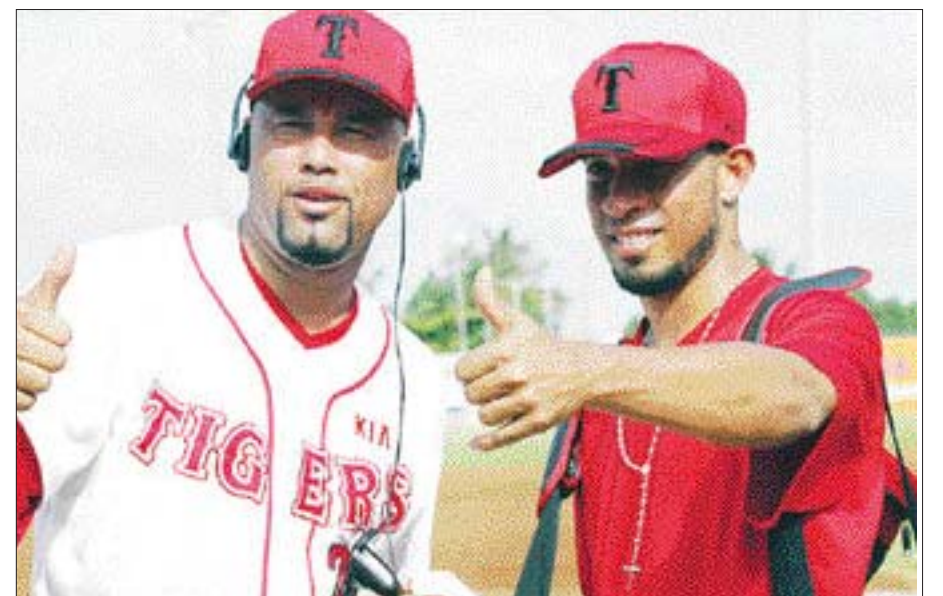
- 17일 (토)
▲2008 메이저리그<뉴욕M : 뉴욕Y> (07 : 55·XSPORTS)
▲제 63회 정통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경북대표 : 전주고>(10 : 00·MBC ESPN)
▲2008 국제 여자 비치발리볼(12 : 50·SBS스포츠)
▲2008 K리그 <포항 : 경남>(15 : 00·KBS N SPORTS·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삼성 : 두산>(17 : 00·KBS N SPORTS), <롯데 : 우리>(14 : 00·

- MBC ESPN), <기아 : LG>(16 : 50·XSPORTS)
▲2008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7 : 45·SBS스포츠)
▲07/08 잉글리시 FA컵 결승전<카디프 시티 : 포츠머스>(23 : 00·MBC ESPN)
18일 (일)
▲2008 LPGA 사이베이스 클래식 3R (03 : 00·SBS골프)
▲2008 PGA AT&T클래식 3R(05 : 00·SBS골프·SBS스포츠)
▲IFBA벤티급 세계타이틀매치<김은영 : 쓰나미>(11 : 00·MBC ESPN)
▲2008 K리그 <대구 : 제주>(15 : 00·

- KBS N SPORTS), <광주 : 수원>(14 : 40·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삼성 : 두산>(17 : 00·KBS N SPORTS), <롯데 : 우리>(17 : 00·MBC ESPN), <기아 : LG>(16 : 50·XSPORTS)
▲2008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 : 히로시마>(17 : 45·SBS스포츠)
▲07/08 네덜란드리그<아약스 : FC트벤테>(21 : 15·SBS스포츠)
19일 (월)
▲2008 LPGA 사이베이스 클래식 FR (03 : 00·SBS골프)
▲07/08 스페인 프리메라리가(02 : 00·KBS N SPORTS)

퇴출설 KIA 리마·발데스 '떨떨'

리마, 2군서 복귀 이후 2연승
발데스, 한화전 2안타 결승점
조범현 감독 "좀 더 지켜봐야"



퇴출설이 나돌던 '위기의 용병' 호세 리마(사진 왼쪽)와 윌슨 발데스(오른쪽)가 최근 KIA 타이거즈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리마는 2군에 다녀온 뒤 최근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모두 승리를 따냈고 발데스도 중요할 때 한 뼘하면서 기대감을 높이는 중이다. 과연 두 선수는 기사회생 할 수 있을까.

리마는 한 때 메이저리그에서 21승을 거두며 통산 89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 기대를 모았지만 국내 무대 데뷔전부터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 2군행을 맞았다. 하지만 리마는 복귀전인 지난 9일 우리 히어로즈전 7이닝 2안타 2피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국내 데뷔 첫 승을 올렸다. 15일에는 한화의 막강 다이내마이트 타선을 맞아 5이닝 5피안타 3볼넷 3탈삼진 3실점으로 막으며 시즌 2승째를 챙겼다. 발데스 역시 지난 14일 한화전 7회 1사·2·3

루서 2타점 중전안타로 결승점을 내는 등 4타수 2안타 4타점을 기록하며 집중력이 살아났다. 당시 그의 결승타점은 연승을 마무리하고 또 다시 연패 모드로 접어들 수 있던 힘을 살린 것이었다.

둘 모두 그동안 지독한 부진으로 퇴출설이 나돌 때와 비교해 확실히 좋아졌다. 기사회생의 가능성은 또 있다. 미국에 급파된 KIA 스카우트팀이 대체 선수를 찾는 데

에를 먹고 있어 이 둘은 지금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면 퇴출을 면할 수 있어 보인다.

조범현 감독은 "일단은 지켜봐야겠다"면서 퇴출 결정을 다소 유보하는 모습이다. 조 감독은 "둘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송희 "골프 여제와 동급"

<女帝>

LPGA 사이베이스 클래식 1R

소렌스탐·헤더링턴과 공동선두

김송희(20·휠라코리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이베이스 클래식 첫날 안나카 소렌스탐(스웨덴)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LPGA 투어 2년차 김송희는 16일(한국시간) 뉴저지주 클리프턴 어퍼 몬트클레어 골프장(파72·6천413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5개를 골라내 5언더파 67타로 소렌스탐, 레이철 헤더링턴(호주)과 함께 공동 선두로 나섰다.

작년 시즌을 부진한 성적으로 보냈던 김송희는 지난 달 코로나 챔피언십에서 준우승, 긴오프에서 공동 5위, 미켈름울트라오프에서 공동 16위에 오르며 점차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패어웨이 안착률 71%를 기록한 김송희는 정확한 아이언샷으로 15차례나 버디 기회를 만들어 타수를 줄여 나갔다.

10번홀에서 출발한 김송희는 11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은 뒤 12번홀(파4)에서 티샷이 밀리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바람에 힘겹게 그린 위에 볼을 올렸지만 4m짜리 퍼트를 성공시키며 안정을 찾았다.

전반에 2타를 줄인 김송희는 안정된 퍼트를 앞세워 후반에 버디 3개를 추가하며 첫날을 상쾌하게 마쳤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한 소렌스탐의 플레이도 결점이 없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린 뒤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한 소렌스탐은 보기없이 버디 5개를 잡아내며 시즌 네번째 우승이자 2주 연속 우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안시현(24)과 재미교포 김초롱(24)은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10위에 오르며 상위권 진입의 시동을 걸었다.

서보미 단독 선두

태영배 KLPGA

서보미(27)가 국내외 강호들이 출전한 태영배 제22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단독 선두로 나섰다.

우승 경험이 없는 서보미는 16일 경기도 용인 태영골프장(파72.5천844m)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다른 선수들이 빠른 그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낚아 2언더파 70타로 리더보드 맨 윗줄에 자리했다. 퍼트수를 27개로 묶어 둔 서보미는 7번홀(파3)에서 침입버디를 잡아낸 데 이어 8번홀(파5)에서 1.5m 버디 퍼트를 넣은 뒤 타수를 지켰다.

국가대표 허은경(18·대원외고)은 1언더파 71타를 쳐 서보미를 1타차로 추격했고 작년 대회 우승자 안선주(21·하이마트)가 이번과 72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시즌 세번째 우승을 노리는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는 11번홀(파4) 두번째 샷을 아웃오브바운즈(OB)를 내는 바람에 한계면에 3타를 잃어 3오버파 75타로 공동 19위까지 밀렸다.

박지성 "유니폼 판매용 아니란 것 입증했다"

챔스리그 결승 앞두고 각오

"난 축구 선수이고 내 능력을 그라운드 안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모두 내가 유니폼 판매량을 늘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2년 연속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승 메달을 목에 건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16일 첼시와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1주 앞두고 각오를 밝혔다. 박지성은 이날 맨유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입단 당시 쏟아진 곱지 않은 시선을 떠올리고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겠다는 당당함을 보였다.

그는 "PSV 에인트호벤(네덜란드)에서 내 능력을 입증하고 맨유에 왔다. 하지만 많은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 선수들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나에게서는 아시아 선수도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언제나 도전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맨유가 한국에서 유니폼을 팔려고 데려왔다는 비아냥거림에 대해서도 "처음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이제 모두 내가 유니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더블'(정규리그·챔피언스리그 2관왕)을 이루겠다는 의욕도 적지 않았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으로부터 출전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그는 "나 역시 우승을 원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도 우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